

유통업 빅바이어들 광주로 몰린다

21일 DJ센터서 '코리아 그랜드소싱페어' 수출상담회 월마트·까르푸·테스코 참여... 지역업체 시장개척 도움

전 세계 식품·생활용품·소비재 분야의 '빅바이어'(Big Buyer)들이 대거 참여하는 '2013 코리아 그랜드소싱페어'의 수출상담회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글로벌 유통업체를 주름잡고 있는 바이어가 대거 광주를 방문하는 만큼, 지역의 우수 식품 및 제품이 전 세계 수출길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3 코리아 그랜드소싱페어'의 수출상담회가 서울에서 이어 광주에서 개최된다. '그랜드소싱페어'는 한국무역협회가 매년 주관하는 대규모 해외마케팅 종합대전 수출 상담회로, 세계 3대 유통업체인 월마트(Walmart)와 까르푸(Carrefour), 국내에서 홀플러스를 운영하며 테스코(Tesco)가 참여한다. 또 중국 유통 3~4위 업체인 리앤화

와 수제 슈퍼마켓, 광동성 최대 쇼핑몰인 이화백화점, 홍콩 최대 한국식품 유통업체인 메이즈(Maze Limited)와 파크엔샵(ParkNshop) 등 총 35개사 63명의 글로벌 바이어들이 광주·전남지역 100개 업체와 식품·생활용품·소비재 분야에서 구매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분야별로 중국 내 1~10위 규모의 유통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것을 비롯,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동지를 둔 식품 및 생활용품 업체도 8개사나 참여해, 지역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상담회에 앞서 20일에는 전남 식품산업연구원을 방문해 지역 식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살펴보고, 광주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별도로 가질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시장개척 경험에 부족하고 해외시장 정보가 어두운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직접 해외 유명 바이어를 발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재선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이 글로벌 빅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수출확대를 위해 지역 특화 업종 분야의 빅바이어들을 지역으로 초청해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xian@kwangju.co.kr

햇말기가 벌써... 이상기온에 과일 출하 2~3주 빨라져

대표적인 겨울 과일인 딸기가 11월 초순에 벌써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등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매장에서는 지난 7일부터 답양에서 첫 출하된 햇말기를 선보여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 가격은 1kg에 3만원선이다. 이 밖에 대형마트에도 산청과 진주 등에서 생산한 '달콤한 딸기

(500g/팩)'를 지난 9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통상 딸기는 12월 중순부터가 제철이며 남부 지방에서도 11월 말에나 출하된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9월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에 딸기 성장이 빨라져 산청과 진주, 담양 등에서 예년보다 2~3주가량 일찍 출하되고 있다.

이상 기온으로 출하 시기가 빨라지는 제철 과일은 딸기뿐만이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은 올해 3~4월 예년보다 앞당겨 찾아온 더위로, 고창, 완주 지역의 4월 출하량이 8% 늘었고, 출하 시기도 2~3주가량 앞당겨졌다. 북송아도 3~4월 개화기에는 병

해 피해를 봤지만 5~6월 무더위로 생육이 양호해 영천, 감곡 지역을 중심으로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높은 조생종이 예년보다 2주 정도 빨리 출하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예년보다 일찍 과일 물량을 확보하고 제철 과일 행사도 앞당겼다. 수박은 작년보다 보름가량 이른 4월 중순에 첫 행사가 진행됐고, 북송아도 작년보다 일주일 가량 이른 6월 중순부터 행사가 시작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니트 넥타이로 멋스럽게

올과 니트 소재의 다양한 넥타이가 선보였다. 이들 타이는 일반 실크 소재의 타이와는 달리 보온성이 뛰어나 날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멋스러워 남성고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격은 5만~9만원 선.

10일 광주신세계 7층 남성의류 매장에 겨울 시즌을 맞아 울과 니트 소재의 다양한 넥타이가 선보였다. 이들 타이는 일반 실크 소재의 타이와는 달리 보온성이 뛰어나 날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멋스러워 남성고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격은 5만~9만원 선. <광주신세계 제공>

수입차 내수시장 잠식 국산차 대부분 판매 감소

올해 1~9월 수입차들의 거센 내수 시장 잠식 속에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차종 대부분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와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중형차 이상 차종뿐 아니라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일제히 판매가 감소한 것이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개 업체의 올해 1~9월 차종별 내수 판매량을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 차종의 판매량이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완성차 5개 사는 내수 시장에서 100만7289대를 팔아 작년 같은 기간(101만4026대)보다 판매량이 0.7% 감소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현대차의 그랜저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기아자동차의 K7 등은 선방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 아반떼는 작년 1~9월 8만 1256대에서 올해 1~9월 6만9609대로 줄었고, 쏘나타는 6만7806대에서 6만4588대로 감소했다. 액센트, i30, i40, 제네시스, 벨로스터도 일제히 감소했다.

기아차도 비슷하다. 모닝, 레이, 프라이트, K5, 쏘울, 스포티지R, 소렌토 R 등 세단과 SUV 대부분 판매가 줄었다. 다만 K7은 1만1272대에서 1만 945대로 판매가 크게 늘었다. /연남수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순매도 주춤 예상... 완만한 회복 기대

국내증권시장에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이 지난주 5500억원 순매도세로 전환하며 코스피지수는 2000선 이하로 하락해 1984포인트로 마감했다. 최근 국내증시의 수급상황이 좋지 못한 이유는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11월 들어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국내기관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지속됐고 중국의 삼중항의 미국 양적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외국인도 매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도 국내증시 수급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읍선만기 일과 중국 시진핑 정권 후 향후 10년 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삼중항회의의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읍선만기일 대비하여 4000억 원 이상 차익신고가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 증가와 연방이 가까워지

면서 지수관련 인덱스펀드가 연말매달투자를 목적으로 주식비중을 꾸준히 늘렸던 과거사례를 본다면 차익신고 증가에 따른 11월14일 읍선만기일에 지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주 외국인이 현금매도와 함께 9400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 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11월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삼중항회의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전국 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달리 5년에 한번 개최된다. 과거 정권에서도 새로운 정권 출범 후 첫 번째 열리는 삼중항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왔으므로 이번 삼중항회의에서 향후 중국정

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주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되는 했지만 6월 28일 이후 10월 말까지 16조원의 순매수를 감안한다면 추세적인 매도세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입증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 8일 투신이 순매수로 전환됐지만 아직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뚜렷한 매수주체가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도 1950~2000 포인트 사이에서 기간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 돼 가격부담이 줄어들어 매수대응에 대한 저점매수 관점에서 시장대응을 권한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부지점장>



농협구례교육원, 산수유농가와 상생 일손돕기

농협구례교육원(원장 강남경)은 최근 두차례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재배농가(정조명·백종임)에서 농가의 부족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지난 봄 일손이 부족해 제 때에 거름주기과 제초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3만㎡에 이르는 산수유밭과 매실밭이 초지로 변한 것을 교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제초작업과 퇴비

운반 및 거름주기 등을 실시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다시 찾아 돕겠다고 약속한 산수유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사진> 농협구례교육원 교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영농철인 봄과 가을에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돕고 있으며, 지역농민들과 함께 하면서 영농철과 상관 없이 일손을 보며 지역농민과 상생

하는 교육원 구원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구례교육원 강남경 원장은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 돼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을 생각하면 농협인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의 일손이 어려운 농촌을 위해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가까이 즐겨온 마음으로 농가를 돕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대생 중앙은행론 강좌 한은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전남대 학생을 대상으로 '중앙은행론'강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좌는 나상욱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해 감지광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발권국 조권현 부국장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강의 주제는 ▲한국은행의 발전정책 수행현황 ▲중앙은행의 역사와 발전과정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와 특징 ▲우리나라 통화정책 및 정책과급경로 등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강좌는 한국은행과 전남대학교가 지역경제발전 및 금융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전남대 경영대학의 '화폐금융론'과목에 중앙은행론을 접목시킨 협동강좌 형식으로 개설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세기보청기

세기의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초등학교... 4477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 4144 서울 강동구... 4477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FDA, ISO 9001인증, CE 0120, GMP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점(광안동)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영광동)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	--------------------------------------	---------------------------------